초등학교 영어교육에 관한 연구[1]

김창호
(원광대학교)

Kim, Chang-Ho. 1998. A Study on the Primary English Education. *Linguistics*, 6-2, 359-370.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earch the present situation of primary English education in Korea and its problems and to find out some desirable approaches for our current primary English education. The questionaire shows most third and fourth grade students think that English is important, interesting and necessary. However many problems appeared. Improving teacher's hearing ability, developing more practical teaching methods, making out more effective teaching materials and facilities are needed. Increasing the class hours per a week is very important. **(WonKwang University)**

1. 서론

21세기를 2년 앞 둔 작금에 우리는, 지구촌이니 국제화니 세계화니 하는 추세 속에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또한 영어 사용 능력을 갖춘 인력의 수요가 그 만큼 더 증대되고 있다. 영어를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영어를 배우기에 여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우리의 영어교육은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았음이 무색할 정도이다. 외국인을 만났을 때 의사소통은 커녕 오히려 기피하는 현상, 간단한 편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며 약의 처방문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영어교육의 참모습이다. 1982년을 기점으로 세계 정보의 85%가 영어로 되어 있을 정도로 최근의 거의 모든 정보는 영어로 출판되고 있다. 따라서 영어를 모르고는 이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활용할 수가 없으므로 영어의 실용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하겠다. 급변하는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도 세계의 공용어인 영어의 유창한 구사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또한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세계화를 위해서도 자라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국제적인 영어를 배우게 함으로써 그들이 21세기에 세계의 주도적인 주인공이 되게해야 한다. 이에 우리 나라는 많은 학자들이 '언어학습의 결정적 시기설' 즉 10살

1. 이 논문은 98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연구됨.

을 전후로 하는 초등학교 시절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97학년도부터는 영어를 정규교과로 하여 주 2시간씩 3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물론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중등학교 교육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터에 조기 영어교육을 한다는 것은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과 우리말에 대한 이해도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어를 가르치게 되면 국가관 확립에 저해가 된다는 입장 등 여러 현실 여건이 시기 상조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커져가는 국력과 늘어가는 세계 각국과의 교류에 대비하기 위한 영어교육의 현실적 필요론이 우세하여 초등학교때 영어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1997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초등 영어교육이 2000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모두 주당 2시간의 영어수업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진 상태다. 이에 본 논문은 영어가 정규교과로 교육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현황과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초등 영어교육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2. 초등 영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2.1 초등 영어교육의 이론적 배경[2]

Halliwell(1992)에 의하면 어린이는 이미 모국어 습득과 더불어 상당할 정도의 인지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 영어교육은 어린이가 갖고 있는 여러 특성을 잘 분석·적용시키면 효과적인 영어교육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Krashen & Terrell(1983)은 언어학습을 학습(learning)과 습득(aquisition)으로 구분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학습보다 습득이 효과적이다. 습득은 무의식적이고 간접적인 활동으로 즉각적이고 유창한 사용(fluency)을 가능케 한다고 했다. Robert(1983)은 영어교육의 최적의 시기는 4세에서 10세 사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Lenneberg(1967)는 사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사춘기 이전에는 뇌의 한편에 손상을 입은 경우 뇌의 다른 편으로 기능을 이전시킬 수 있어 언어기능의 회복이 가능하나 사춘기 이후에는 뇌의 왼쪽 반구가 거의 모든 언어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 2 외국어를 사춘기 이후에 배우게 되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사춘기 이전의 외국어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피력했다.

한편 Collier(1987)은 언어학습에서의 나이 요인에 대한 복합적인 결과

2. 영어의 조기교육에 관한 이론적 배경은 김창호(1997)를 참조.

를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읽기, 언어기술, 수학, 과학 등에 걸쳐 test를 한 결과 영어학습을 8~11세에 시작한 어린이가 가장 우수하였으므로 인지학습 언어운용능력(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 Cummins, 1981)의 발달은 2년 정도의 모국어 학교교육을 받은 후 제 2의 언어 즉 외국어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유리함을 재확인시켰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기 영어교육을 사춘기 직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음직한다. 초등학교 3학년이면 국어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와 함께 병행해 나가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오히려 모국어에서 습득된 학습 기술을 영어 학습에 응용 이용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다. 2020년이 되면 現 초등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이 21세기의 주인공으로서 급변하는 세계 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초등학교에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게 된 것이다.

2.2 초등 영어 교육의 현황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바탕이 되는 언어 기능 교육이 주(主)가 되어야 한다. 학습 지도에서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에 초점을 맞추고 암기식 학습보다는 자연적인 습득을 지향하여야 한다. 교사 중심의 학습 지도에서 탈피하여 학생 활동 중심의 지도로 탐구 정신과 창의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 영어 교육에서는 학습 동기를 높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학습 효과에 굉장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익산시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사를 해보았다.

< 영어는 중요한가? >

	3학년	4학년
매우 그렇다	98 (82%)	107 (89%)
그런 편이다	15 (13%)	12 (10%)
그렇지 않다	7 (5%)	1 (1%)
계	120 명	120명

위 표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영어는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가면 영어의 중요성에 대해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이는 동기 유발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왜 영어는 중요한가?

< 영어는 왜 중요한가? >

	3학년	4학년
어른이 되어 취직할 때 필요하다	74 (62%)	95 (79%)
해외 여행에 필요하다	27 (23%)	21 (18%)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19 (15%)	4 (3%)
계	120 명	120 명

위 표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영어 공부가 자신의 미래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3학년에서 4학년으로 갈수록 더욱 더 영어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ardner & Lambert (1972)는 어린이의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적성이나 학습 방법보다는 그들의 흥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교실에서 학습 활동을 계획할 때는 어린이의 관심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영어가 재미있는가 >

	3학년	4학년
재미있다	96 (80%)	88 (73%)
그저 그렇다	19 (16%)	20 (17%)
재미없다	5 (4%)	12 (10%)
계	120 명	120 명

위 표는 그 앞의 2개의 표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많은 학생들이 영어 시간이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학년이 높아지면 그 흥미도가 조금씩 떨어진다는 것이다. 학년이 높아지면서 영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인식하지만 흥미는 더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1년간의 영어 공부에 헛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1년반 동안의 실적에 다소 이른 판단이기는 하지만). 초등 영어 교육은 기초 교육이며 중등 학습을 위한 준비 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긍정적인 학습 태도로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3 학습 요건

2.3.1 교사

영어는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이기 때문에 학습 내용 못지 않게 교사와 학습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어린이들은 학습 내용과 가르치는 교사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고 교사를 보면서 학습 내용을 생각하기 때문에 초등 영어 교육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훌륭한 교사 양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Brumfit(1991)은 외국어 교사는 회화는 기본적인 능력이고 회화 능력과 함께 수준에 맞는 외국어 교수법을 숙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영어 교사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며 간단하고 명쾌한 영어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이야기, 무용, 역할극 등을 통해서 학습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라는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교사의 자질이야말로 교육의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큰 관건이다.

여러 가지 미비한 여건 속에서도 초등 영어 교육을 성공시킬 수 있는 필수 불가결의 요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사인 것이다. 우수한 교사는 빈약한 시설과 불충분한 교재 속에서도 창의력과 의욕을 발휘하며 교육의 성공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완기(1996)는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 영어 교사는 language user이어야 한다.
2. 영어 교사는 language analyst이어야 한다.
3. 영어 교사는 language teacher이어야 한다.
4. 영어 교사는 learning manager이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교사는 영어를 매우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초등 영어 담당 교사들은 일정시간 이상 영어 연수를 이수한,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교사들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영어를 전공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영어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교사들이 몇 시간의 이수 내용 가지고 수업에 임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물론 교사용 지도서나 video 자료 등 부속 자료가 뒷받침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말하기, 듣기 등 음성 언어 지도에 부딪치면 심한 심적 부담을 느낄 것이다. 영어 교육 전문가들 중에서는 영어를 전공한 학생들을 영어 전담 교사로 양성, 채용하여 초등 영어 교육 현장에 배치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 영어 교육이 초등 교사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것은 초등 학생들을 잘 이해하고 다룰 줄 안다는 점에 후한 점수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120시간이라는 속성 양성에 영어 교사의 자질 문제가 염려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현재 교원 연수원의 교사 연수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어서(IMF 영향으로 더욱 더 기회의 폭이 좁혀짐) 소수만이 연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 많은 교사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연수 시간에 비해 연수 수준과 양이 너무 높고 많다는 중론을 참고하여 연수 내용을 충분히 소화, 능란하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교사 양성 기관이나 연수원의 연수 프로그램의 개선과 지속적인 교사의 재연수를 통해 우수 교사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2.3.2. 교수 자료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 영어 학습을 위한 교재나 보조 자료는 교사가 성공적인 수업을 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현대화된 교수 매체가 교실 안에 도입됨으로써 학습자 자신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열린 교육이 확산되고 있지만 기존의 낱말 카드, 녹음 테이프 등 재래식 자료들도 초등 영어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편이다. 좋은 학습 자료에 대해 이완기(1994)는

1. 교사가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반복 사용이 가능하고 수정·보완이 용이해야 한다.
3. 현실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고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이 애써 배운 영어가 일상 생활에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은 단일 언어 사용국인 우리 나라에서는 제 2언어인 영어의 사용이 교실에 국한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동들의 적극적인 영어 사용을 유도할 만한 학습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다.

첫째로 card 활용을 들 수 있는데 영어 수업에 가장 보편적인 학습 자료로 또한 가장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습 자료이다. 초등 3~4학년은 주로 그림을 이용하고 5~6학년은 card를 활용하여 단어를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도 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 colors, shapes, numbers외에 opposites, action words 등 다양한 card를 이용하여 소집단 활동에 자주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일상생활에 자주 쓰이는

기본 표현이 어느 정도 학습된 상태에서는 그림을 연계시켜서 상황을 설명하는 상황 카드도 바람직하다.

둘째로 녹음 테이프 등 녹음 자료 등은 중요한 자료인데 초등 영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chant나 song 등을 코너 학습에 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며 비용도 비교적 싸고 사용 제작도 용이한 편이다.

셋째로 video는 영상을 통해 사람과 사물을 만나고 또한 움직임과 모양 등이 소리와 동시에 결합하여 일반 청각 자료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특히 만화 video는 초등 학생들이 상황이나 억양 등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데 Marsden(1991)은 만화 video는 간단한 언어 표현이 훨씬 허용적이며 내용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어서 효과가 훨씬 높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듣기만 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을 때 이해가 더 잘된다. Stempleski와 Tomlain(1990)도 실제 의사소통의 80% 이상이 시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으며 시각적 요소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넷째로 컴퓨터가 교육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언어교육에도 새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최근 컴퓨터 영어교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컴퓨터가 언어학습에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CALL(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을 들 수 있는데 영어교육에서 CALL의 활용은 컴퓨터를 이용한 개별학습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학습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학습이라 할 수 있다. CALL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프로그램인데 초등 영어에서는 초등 학생들의 인지적·정서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문자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피해야 하겠다. 또한 1992년 국내에서 CD-Rom이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초등 학생용으로는 게임 형식의 문자 익히기나 단어 학습용이 대부분인데 영어가 초등학교 정규교과로 시행되고 있는 작년부터 어린이용 CD-Rom의 제작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시청각 학습 자료들은 초등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므로 매우 효과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아이들은 오랫동안 집중을 하지 못하므로 지속적으로 교수매체가 개발되어야 하며 기존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4. 문제점

영어교육에 있어서 듣기가 읽기, 쓰기, 말하기 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영어교육은 읽기, 말하기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Brooks는 외국어 학습의 초보 단계에서는 수업의 50%는 청취력 수업이 바람직하다고 한다.(Brooks, 1964:107) Gary and Gary도 다음과 같은 이론을 들어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 증명된다. 즉 어린이가 '엄마'라는 첫번째 단어를 발화하기까지는 적어도 10~12개월의 듣기가 선행된 후이다. 즉 듣기가 말하기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하물며 초등학생들이 I am a boy. You are a girl. 등 평생에 한 두번 쓸까 말까한 문장들을 외우며 죽은 영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도 아이들의 듣기 능력을 뒤로 한 채 앵무새처럼 몇 가지 문장들을 줄줄 외우고 다니면 대단한 양 착각을 하고 있다. 남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 내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것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연수과정을 모두 이수한 초등영어 교사들의 여전한 수업 태도를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겠다. TV 교육 방송에서도 초등교사를 위한 영어수업이 계속 방송되고 있고 또 꾸준한 부교재가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현장에서 교사들은(모든 교사가 그렇지는 않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점도 없지 않다. 교사는 고작 기자재 조작만을 담당하고 시간 내내 아이들은 video 시청만 하는 등의 자세가 문제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영어 과목의 시간 배당을 지적하고 싶다.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의 영어시간은 1주일에 2시간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이는 수박 겉 핥기식의 형식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 물론 타 교과와의 시간 배정을 고려하다 보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영어는 언어이므로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30분씩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을 말해두고 싶다. 정규시간에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침 자습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 듣기를 위주로 한 영어 지도를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감히 제시해 본다. 그 외에도 교사들의 기자재 조작의 기술 부족과 학생 활동 중심으로 수업하기엔 너무 많은 학급당 학생 수, 그리고 해마다 영어 교과서가 달라지면서 교과서를 재활용할 수 없는 비실용적인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2.5. 대안

위에서 언급한 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2.5.1.

우리 영어교육의 장래를 밝히는 횃불로서 교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학생들의 듣기 지도를 위해서는 교사 자신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사는 듣

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접촉하기 쉬운 radio나 TV, video를 이용, 실력 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외국인을 친구로 맞이한다든가 동료 교사들과 간단한 상황을 영어로 대화를 나눈다든가 접근하기 쉽고 동시에 커다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듣고 말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듣기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한 방법은 교사가 처음부터 학급관리(class management)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Everybody sit down.
Answer.
Listen carefully.
Open your books.
Repeat after me.

교실에 들어가서 "Good morning"이라고 인사를 한다면 40명 중 40등 하는 지진아도 며칠이 지나면 'Good morning'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즐거움과 사교를 위한 듣기 활동에는 노래, 이야기, 시 ,연극 등이나 Ur(1984:29)[3]에 의해 제안된 교사가 만든 흥미있는 한담(general interesting chat)이 포함된다.

2.5.2.

초등 영어교육의 중요 요소는 잘 훈련된 교사이며 교사의 영어 사용능력이 필수라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현행 120시간 연수로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120시간 연수외에도 외국인과의 합숙 연수를 통해 연수기간을 다 채우면 무조건 모두 이수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수기간 중 모국어(한국말)를 사용한 횟수만큼 감점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어느 일정한 점수를 획득한 자에 한해 이수증을 수여해서 초등 영어교육 현장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이론적 연수보다는 실제적인 현장 연수를 실시하고 영어 사용 능력 신장을 위해 개인별 회화 실습 기회를 확대해야 하겠다.

2.5.3.

3. Ur(1984)은 이런 활동에서 즐거움 이외의 많은 성과를 설정한다면 목표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비형식적인 교사의 한담은 훌륭한 듣기 자료이며 강도 높은 활동 등이 학생들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현재 초등학교 3, 4학년 영어수업 시간이 주당 2시간씩으로 되어 있다. 1년에 34주 수업한다고 했을 때 2×34=68시간을 영어로 접하게 되는 것이다. 1년에 68시간 영어를 대하면서(물론 개인적으로 사교육을 받는 아동도 있겠지만) 영어에 대해 성과에 있었느니 지도가 효과적이었느니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일지도 모른다. 영어 배당 시간을 무조건 늘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현 3, 4학년 담임교사들의 수업시수가 거의 1주일에 30시간 이상임을 감안하면 영어시간을 늘인다는 것이 많은 무리가 될 수 있다. 이에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아침 자율학습 시간이나 점심시간 기타 등등 학교 차원에서 수업 외의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를 매일 접하게 해 생활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영어 전담교사를 양성, 배치하여 이왕 시작한 영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며 교사 개개인도 더욱 더 끊임없는 노력의 자세가 요구된다.

기타 학교에 실치되는 멀티미디어 시설은 되도록 조작이 용이하여 쉽게 조작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으로 배치하고 또한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의 대학이나 시·군 교육청에서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컴퓨터 연수를 시킴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교실 안으로 배치된 컴퓨터가 사장되는 일이 없이 학습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Activity 중심의 영어수업이 되려면 교실을 최대한으로 놀이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 40명 이상의 학생으로는 불가능하므로 학급당 20명 이하의 수준으로 학생을 구성하여 학급 전체 학생들이 주어진 영어시간 동안에 한마디라도 제대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IMF에 모든 계획과 활동들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21세기를 이끌고 나갈 초등 학생들에게의 투자는 아낌없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3. 결론

지구촌 한 마을의 시대를 살아갈 21세기 세대들에게는 국제 언어로 통용되는 영어를 모르고는 국제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으므로 영어교육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현대 사회가 서로의 공존을 위해 사상과 이념의 벽을 넘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기술, 정보의 고도화가 요구되는 국제화 시대이고 보니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97학년도부터 영어가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침투가 되었는데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과는 여러 면에서 미성숙 단계의 학생들에게 행해지는 전인교육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다. 초등학생 시기에 외국문화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하고 우리 문화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초등 영어 교육은 투철한 국가관을 갖고 능동적인 자세로 미래에 대비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우리 나라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하는 적극적인 영어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영어 몇 마디 배웠다고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모국어와 외국어는 상호보완의 기능이 있으므로 국어교육도 강화하여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감각을 가지고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간절한 바램이다. 끝으로 앞에서 언급한 우리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현실과 諸 문제점들을 관계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쓴다면 우리 초등 영어 교육의 미래는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참 고 문 헌

이완기. 1994. 초등 영어 교육론, 문진당

박약우 외. 1997. 초등영어 교재 분석 연구, *Foreign Language Education*, 3(2), 79-118

Brooks N. 1968. Teaching Culture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Foreign Language Annals*, 1, 204~217.

Brumfit C. 1984. *Communicative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 The Role of Fluency and Accurac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ardner R. & W. E. Lambert. 1972. *Attitudes and Motiv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Rowley, Mass : Newbury House Publishers.

Halliwell Susan. 1992. *Teaching English in the Primary Classroom,* Longman.

Krashen S. D & Y. D. Terrell. 1983.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Pergamon Press.

Lennebreg, E. 1967. *Biological Foundation of Language.* New York : Wiley & Sons.

Marsden, B. 1991. Using video in the primary classroom. In C. Kennedy & J. Jarvis. (Eds.), *Ideas and Issues in Primary ELT.* Hongkong : Thomas Nelson and Sons Ltd.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2nd ed.).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oberts J. 1983. Priorities in Disseminating a Communicative Syllabus, in K. Johnson, D. Porter(eds). *Perspecitives in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Academic Press.

Ur. P. 1984. *Teaching Listening Comprehensio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Tel : 0653-850-6518